

# 삼성, 연말맞아 이웃사랑 성금 500억 기탁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기탁 아동센터·독거노인 찾아 봉사활동

삼성 계열사들이 연말을 맞아 이웃 돌보기에 나섰다. 삼성은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할 '2018 연말 이웃사랑 성금' 500억원 을 조성했다고 2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및 삼성SDI 등 전자계열사와,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 들도 동참했다. 각 회사가 대외 기부금 승인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

성금은 청소년 교육 지원과 취약계층 의료 보건개선 개선, 장애인 복지 증진, 다문화가족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앞서 삼성은 1999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5700억원을 출연했다.

임직원들도 연말 이웃 사랑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전국 사업장에서는 임직원과 시민 2600여명이 함께 김장김치 222t(톤)을 담가 2



삼성전자는 여러 계열사들과 함께 연말 이웃 나눔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만2778세대에 전달했다.

또 수원 삼성디지털시티 임직원들은 경기도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에게 줄 선물을 직접 만들고, 구미 삼성스마트시티 임직원들은 20일 '일일 산타'로 지역아동센터 49곳에서 1500여 명 아이들에 성탄 선물을 전달키로 했다.

아울러 삼성디스플레이는 '사랑의 김장축제', 삼성SDI는 독거노인가구 100곳에 내의 를 전달하는 등 행사를 진행한다.

앞으로도 삼성은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 LCC 신규면허 신중해야



### 기지 수첩

양성운  
(산업부)

국내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추가 소식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LCC는 2004년 한성항공(티웨이 항공으로 변경) 설립과 함께 비롯됐으며 2005년 제주항공, 2007년 에어부산, 2008년 진에어, 2009년 이스타항공, 2016년 에어서울이 잇달아 출범하는 등 6개사 체제로 확대됐다. LCC 출범 이후 해외여행 문턱이 낮아지면서 꾸준히 수요가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신규면허 심사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3월까지 새 LCC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면허 신청서를 접수한 항공사는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에어필립 등이다. 이들은 각각 강원도 양양공항, 청주공항, 인천공항, 무안공항 등을 거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항공사 면허발급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신규 LCC 추가할 경우 생존 경쟁을 위한 업계간 '치킨게임'이 진행되면

서 성장세가 크게 꺾일 것이라는 우려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78년 항공시장 규제 완화법을 시행하면서 항공사가 대폭 증가했다. 초기 신규 고용창출과 시장 경쟁에 따른 소비자 권리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지만 항공업의 특성상 시장 포화로 인해 안전사고가 늘어나면서 결국 대부분 회사가 파산했다.

여기에 LCC 업계가 이미 시장 포화상태라는 점도 문제다.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스롯'이 제한적이며 국내선의 경우 제주 노선을 제외하고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은 LCC가 많은 편에 속한다. 인구 13억 이상의 중국에도 LCC는 8곳에 불과하다. 인구가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은 일본에도 6개의 LCC만 영업을 하고 있다.

무리하게 항공사업자가 늘어나게 될 경우 경쟁 증가로 인한 수익 감소, 이로 인한 안전 투자 감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부 항공사가 파산할 경우 일자리 상실과 실업 등 사회적 비용 발생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신규 LCC 출범으로 향후 국내 항공 업계에 미칠 영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ysw@metroseoul.co.kr

# 집배원이 추천하는 겨울 여행지 100곳 소개

크리스마스, 연말·새해 일출, 방학 등을 맞아 겨울에 가볼만한 여행지 100곳을 담은 '집배원이 전해 드리는 겨울여행'이 책자로 나왔다. 이번에 나온 책자는 '집배원이 전해 드리는...' 시리즈로 여름, 가을에 이은 세 번째 여행이야기다.

여행지는 전국의 집배원들이 겨울철 여행지로 추천한 곳 중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일출명소, 온천, 겨울산, 썰매장, 야경명소 등 경치

가 빼어나고 휴가를 즐기기에 좋은 곳을 담았다.

서울 도심에서 즐기는 크리스마스 거리, 바다길이 열리는 안산 누에섬과 황홀한 석양, 동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해돋이 명소, 치유 온천수 석정온천휴스파 등은 가족과 함께할 최적의 겨울휴가지로 꼽혔다.

여행지와 함께 맛집도 수록됐다.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와 특산물도 함께 들어있다.

책자는 전국 우체국에 비치돼 있어 가까운



집배원이 전해 드리는 겨울여행 책자.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을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오늘의 운세** 12월 3일 (음 10월 25일) <http://www.saju4000.com>

<p><b> 쥐 </b> 48년생 된다고 되풀이하면 정말 된다. 60년생 어린 친구를 만나야 지혜가 생기고 일도 잘 풀린다. 72년생 1%만 존중해줘도 99%의 마음을 얻게 된다. 84년생 우는 아이는 젖을 뗐더라도 달래야 한다.</p>	<p><b> 말 </b> 54년생 우물가에 왔는데 두레박이 없으니 답답. 66년생 삶의 질은 나의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걸 명심. 78년생 허투르가치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다 낭패. 90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 하라.</p>
<p><b> 소 </b> 49년생 자신감은 내면에서 나온다. 61년생 파란 하늘이 그림고 비빌 언덕이 필요한 날이다. 73년생 자신이 옳다고 믿어도 침묵해야 한다. 85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는 것이 뜻밖의 좋은 일이다.</p>	<p><b> 양 </b> 55년생 자식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니 흡족. 67년생 상대의 실수나 나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온다. 79년생 여름이 갔으니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 91년생 머리는 아프고 몸도 피곤하나 재물은 들어온다.</p>
<p><b> 호랑이 </b> 50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하자. 62년생 상대의 실수를 덮어 주면 보답을 받는다. 74년생 동가식사가속(東家食西家宿)되지 않도록. 86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게 된다.</p>	<p><b> 원숭이 </b> 56년생 칠삭같이 어두우니 곧 새벽이 오겠다. 68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80년생 확실한 거절이 상대에게도 도움을 준다. 92년생 매력적인 이성의 유혹이 있는 날이니 중심을 잘 잡자.</p>
<p><b> 토끼 </b> 51년생 아랫사람의 조언으로 일이 잘 마무리. 63년생 건강이 염려되면 먹는 것에 주의하고 운동. 75년생 집 내간 말이 새 식구를 일러서 돌아오니 이득이 많은 날. 87년생 비단옷 입고 밭길을 돌아다니는 격.</p>	<p><b> 닭 </b> 57년생 비상금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할 것. 69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하니 마음을 겸손하게. 81년생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93년생 상사와의 의견충돌 예상 양보하라.</p>
<p><b> 돼지 </b> 52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 날. 64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 76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은 법. 88년생 상대방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 손안에 있으니 다행.</p>	<p><b> 개 </b> 58년생 뜻하지 않은 행운에 마음이 기쁘나 복병을 주의. 70년생 내가 믿어야 상대도 설득시킬 수 있다. 82년생 겨울은 혼자 웃지 않는다. 94년생 명성이 깔렸으니 최선을 다해서 미뤄둔 일을 마무리.</p>
<p><b> 뱀 </b> 53년생 지는 입을 보면 내 신세를 보는 듯 처량. 65년생 얼룩진 옷을 바라만 본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77년생 두드러진 열릴 문이니 힘껏 두드려라. 89년생 내용보다 포장이 중요할 때도 있다는 걸 명심.</p>	<p><b> 돼지 </b> 59년생 가는 사람도 내게는 소중한 사람. 71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으며 오니 기쁘다. 83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좋은 일이 올 것이다. 95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일이 잘 해결.</p>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3	4				7	8	
2			3	6				9
		9		6		3		
	1	3			6	5		
	2		7		1		9	
	4			9			7	
		6					1	
		8	5	1	3	4		

	7	1	4		9			
5			2		6			4
				7				
	4			8			6	
9		5	2		3		7	
	6			3			2	
				1				
2		3		8				5
	1		5		9		3	

**스도쿠 정답**

2	9	7	8	1	5	8	6	4
8	1	6	7	2	3	9	5	9
5	2	5	8	6	9	2	7	1
7	6	8	1	2	4	9	2	5
2	5	9	2	7	6	8	1	8
1	2	5	9	8	6	4	7	7
6	7	1	9	8	2	1	5	2
5	8	2	6	2	1	7	4	9
9	2	4	2	5	7	1	8	6
2	5	1	8	9	6	7	4	2
6	8	7	2	1	4	5	9	3
8	2	6	5	2	7	1	9	1
2	1	2	8	9	4	5	8	6
1	9	5	2	8	6	2	7	4
9	5	1	2	8	6	2	7	7
7	2	8	9	6	2	1	4	5
4	6	2	7	5	1	9	4	8

문제 제공 = **보누스**

## 김상회의四季

### 복덕의 인연

“복덕이 잘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날씨 좋은 오후에 몇 사람이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던 중 나온 말이다. “복덕이란 게 바란다고 막 들어오나. 그럼 아무나 받게.” 옆에 앉은 사람이 웃음을 지으며 응답을 했다. 복덕은 말 그대로 복스러운 이익을 말한다. 집안에 또는 사회적으로 이로운 일과 행복한 일이 생기는 걸 뜻한다. 그러나 복덕은 아무나 누구에게나 오지 않는다. 선하게 산 사람에게 조상님 부처님이 내리는 보상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유교나 불교에선 선행을 행한 사람에게 복덕이 내린다고 말한다. 알기 쉽게 말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 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외국의 유명한 일화를 보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한국에서 미국대사를 역임했던 제임스 레이니는 귀국해서 예모리 대학의 교수가 됐다. 그는 건강을 위해 출퇴근 할 때 걸어서 다녔다. 어느 날 그는 작은 집 앞에 쓸쓸하게 혼자 앉아있는 노인을 보았다. 레이니는 다정하게 한마디의 인사를 건넸고 말뱃이 됐다. 시간이 날 때면 레이니는 외로운 노인을 찾아가 커피를 함께 마시고 잔디를 깔아주기도 했다. 그렇게 2년여가 지났을 때 레이니는 출근길에 노인을 만나지 못했다. 집을 찾아간 그는 노인이 전날 별세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조문을 하던 그는 노인이 코카콜라 회장을 지낸 사람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정말 놀랄 일은 따로 있었다. 노인이 그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남긴 것이다. 레이니는 그 돈 전액을 예모리 대학에 발전기금으로 내놓았다. 엄청난 금액을 내놓은 그에게는 총장이 라는 명예가 주어졌다. 이 이야기를 보면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꼭 보상을 받으려고 선하게 사는 게 아니다. 선하게 살면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선사할 수 있고 힘겨운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선하게 살아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거기에 더해 선물 같은 특별한 복덕이 따라온다. 내가 받지 못하면 후손들이라도 복덕을 받는다. 복덕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21-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9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96호